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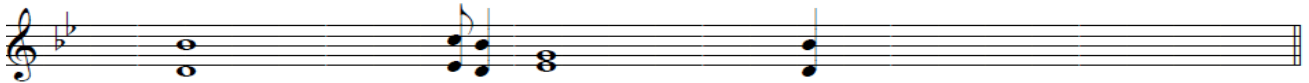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2026. 1. 1)



제 1 독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6, 22-27

화답송 시편 67(66), 2-3.5.6 과 8(◎ 2 ㄱ)



후렴.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4, 4-7

복음 환호송 히브 1,1-2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알렐루야.

복 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 16-2

입당 249

봉헌 213

영성체 498

파견 44

2026년도 사목 지침

“선포와 나눔의 해”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성 유대철 베드로 공동체 여러분!

2026년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사목 지침은 부산 교구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선포와 나눔의 해’로 정했습니다. 교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선포는 온전한 사랑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은 필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체를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었던 초대 교회 신자들은 모든 이에게 “호감”을 얻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지체이지만 한 몸으로 서로 사랑했던 그들’은 이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기쁨과 희망, 생명과 평화를 세상에 전하였습니다.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와 새로운 이웃인 이주민에게도 우리의 복음적 기쁨과 희망이 닿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을 기쁨에 넘쳐 선포할 때 세상은 우리를 신뢰하고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된 기쁨과 희망에 목말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갈증이 풀릴 수 있도록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배우고 나누어야 합니다. 한편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는 조부모와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하느님의 귀한 선물’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확신의 결과’이며,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겼던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신앙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느님을 떠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자처럼 ‘예수 그리스도 현존의 체험’을 통해 이것 또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선포와 나눔을 통해 더욱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래의 실천사항을 다 함께 실천하여 행복한 우리 성 유대철 베드로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 실천사항

1. 선포의 공동체 만들기

- 주일 복음 묵상하고 실천하기
- 새로 온 이민자들, 신자들 관심 가지기
- 순교자들, 성인들 삶 배우고 실천하기

2. 나눔의 공동체 만들기

- 구역 모임 충실하기 (복음 나누기 묵상, 실천)
- 자녀, 손주들에게 신앙의 유산 나누기
- 신심단체, 성시간, 미사 및 성사를 통해 체험한 하느님 사랑 나누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2코린 2,15)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밀턴 성 유대철 베드로 성당
주임신부 김대하 요한 사도